

# 2013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4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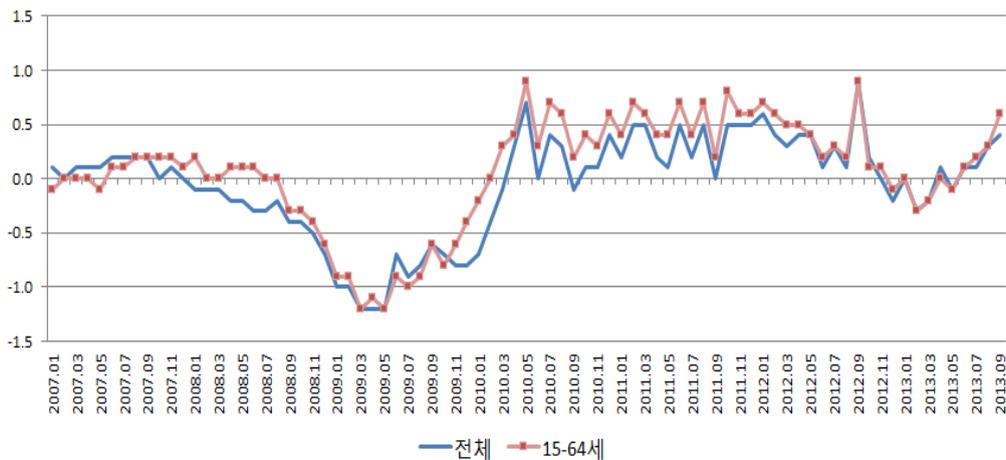
동향분석팀

## I. 2013년 노동시장 개관

2013년 10월까지의 상황을 볼 때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48천 명 증가하여 전년 동기의 461천 명 증가보다 크게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2012년부터 지속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3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던 것이 반영된 것으로, 경기가 호전되면서 2013년 3분기 421천 명 증가, 2013년 10월 476천 명 증가 등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고 있는 중이다. 고용률도 2013년 초를 저점으로 그 이후 증가 추세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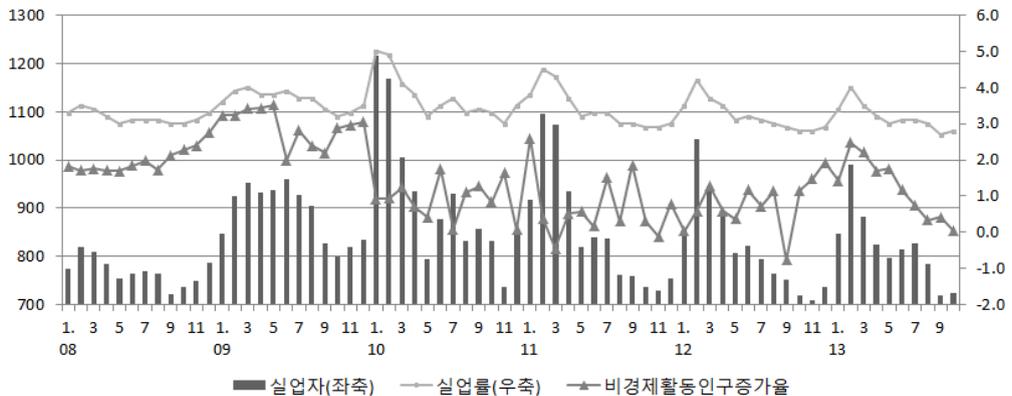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10	2011	2012	2011. 1~10	2012. 1~10	2013. 1~10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0,590	41,052	41,582	41,014	41,536	42,063
	(증가율)	(1.2)	(1.1)	(1.3)	(1.1)	(1.3)	(1.3)
	경제활동인구	24,748	25,099	25,501	25,099	25,522	25,852
	(증가율)	(1.5)	(1.4)	(1.6)	(1.4)	(1.7)	(1.3)
	취업자	23,829	24,244	24,681	24,222	24,683	25,031
	(증가율)	(1.4)	(1.7)	(1.8)	(1.7)	(1.9)	(1.4)
	(증가수)	(323)	(416)	(437)	(407)	(461)	(348)
	참가율	61.0	61.1	61.3	61.2	61.4	61.5
	(남성)	(73.0)	(73.1)	(73.3)	(73.2)	(73.4)	(73.2)
	(여성)	(49.4)	(49.7)	(49.9)	(49.7)	(50.0)	(50.2)
	고용률	58.7	59.1	59.4	59.1	59.4	59.5
	(남성)	(70.1)	(70.5)	(70.8)	(70.5)	(70.8)	(70.7)
	(여성)	(47.8)	(48.1)	(48.4)	(48.1)	(48.5)	(48.8)
	실업자	920	855	820	877	839	821
	실업률	3.7	3.4	3.2	3.5	3.3	3.2
	(남성)	(4.0)	(3.6)	(3.4)	(3.7)	(3.4)	(3.4)
	(여성)	(3.3)	(3.1)	(3.0)	(3.2)	(3.1)	(2.9)
	비경활	15,841	15,953	16,081	15,915	16,015	16,212
증가율	(0.9)	(0.7)	(0.8)	(0.8)	(0.6)	(1.2)	
15~64세	참가율	65.9	66.2	66.4	66.2	66.5	66.5
	(남성)	(77.1)	(77.4)	(77.6)	(77.4)	(77.7)	(77.5)
	(여성)	(54.5)	(54.9)	(55.2)	(54.9)	(55.2)	(55.5)
	고용률	63.3	63.8	64.2	63.8	64.3	64.3
	(남성)	(74.0)	(74.5)	(74.9)	(74.4)	(75.0)	(74.8)
	(여성)	(52.7)	(53.1)	(53.5)	(53.1)	(53.5)	(53.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와 같은 최근의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는 여성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에 힘입은 바 크다. 7월부터 남성 166천 명, 여성 202천 명 증가에 이어 8월 남성 167천 명, 여성 266천 명, 9월 남성 206천 명, 여성 257천 명, 10월 남성 187천 명, 여성 289천 명 증가 등으로 여성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남성보다 크게 나타났고, 이로 인해 1~10월 전체를 보아도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0.1%p 감소했지만 여성은 전년동기대비 0.3%p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1~10월 대비 1.2% 증가해 2012년의 0.6%보다 크게 증가했지만, 이 역시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폭이 감소하다가 10월에는 전년동월대비 0.0% 증가하는 수준까지 증가폭이 떨어진 상태이다. 실업률은 2013년 1~10월 평균 3.2%로 전년동기보다 0.1%p 떨어졌다. 이상과 같이 노동시장 관련 지표는 최근으로 오면서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세를 반영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표 1, 그림 2 참조).

## II. 2013년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 1. 20대 고용률 감소했지만 최근 들어 회복 추세

2013년 1~10월 취업자 수 증감을 연령별로 보면 25~29세, 35~39세에서 감소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증가하였다. 35~39세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때문에 감소하여 고용률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5~29세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고용률도 전년동기대비 0.8%p 하락하였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20대 후반 연령층은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률 하락 흐름에서 점차 벗어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3 참조). 2013년 2~3월경을 저점으로 고용률 감소폭을 줄이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여성 20대 후반은 9, 10월 전년동월대비 각 1%p, 2%p 증가하였다. 남성 20대 후반도 9월에는 0.8%p 증가했으나 10월에는 0.4%p 감소하였다.

취업자 수 증가는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그랬던 것처럼 50대 이상 연령층이 주도하였다. 이들 연령층은 고용률도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며, 성별로 보아도 뚜렷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표 2〉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생산가능인구 증감		
	2010	2011	2012	2011. 1~10	2012. 1~10	2013. 1~10		2011. 1~10	2012. 1~10	2013. 1~10
15~19세	27	22	4	25	3	-8	224	15	-50	-31
20대	-69	-58	-40	-60	-31	-63	3,565	-132	-34	66
20~24세	-11	-11	89	-11	89	23	1,271	20	131	154
25~29세	-59	-47	-129	-49	-120	-85	2,294	-152	-165	-88
30대	-4	-47	-31	-46	-31	-20	5,732	-84	-109	-68
30~34세	45	44	79	37	77	70	2,894	42	41	54
35~39세	-49	-91	-110	-82	-108	-90	2,837	-126	-150	-122
40대	29	57	11	60	15	15	6,635	13	18	25
50대	294	291	270	285	281	248	5,583	349	315	260
60세 이상	47	149	222	143	225	176	3,292	301	383	275
전 체	323	416	437	406	461	348	25,031	462	522	5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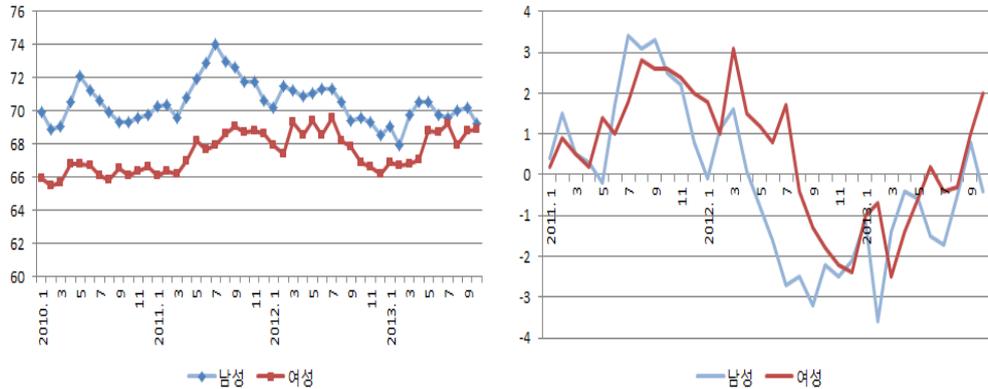
(단위: %)

		2010	2011	2012	2011. 1~10	2012. 1~10	2013. 1~10
전체	전 체	58.7	59.1	59.4	59.1	59.4	59.5
	15~19세	6.1	6.8	7.0	6.9	7.0	6.9
	20대	58.2	58.5	58.1	58.5	58.4	56.8
	20~24세	44.3	43.5	44.5	43.5	44.7	43.1
	25~29세	68.2	69.7	69.2	69.7	69.6	68.8
	30대	72.0	72.2	72.7	72.1	72.7	73.0
	30~34세	70.6	71.0	72.2	70.8	72.0	72.8
	35~39세	73.2	73.3	73.2	73.2	73.3	73.3
	40대	77.8	78.4	78.3	78.3	78.4	78.3
	50대	70.9	71.6	72.2	71.5	72.2	73.0
60세 이상	36.0	36.5	37.5	36.7	37.7	38.5	
남성 (여성)	전 체	70.1 (47.8)	70.5 (48.1)	70.8 (48.4)	70.5 (48.1)	70.8 (48.5)	70.7 (48.8)
	15~19세	4.7 ( 7.7)	5.5 ( 8.1)	5.7 ( 8.3)	5.6 ( 8.2)	5.9 ( 8.3)	5.8 ( 8.0)
	20대	58.2 (58.3)	58.3 (58.7)	57.3 (58.8)	58.4 (58.7)	57.6 (59.1)	55.7 (57.8)
	20~24세	38.3 (48.8)	37.2 (48.2)	39.1 (48.9)	37 (48.5)	39.3 (49.1)	38 (47.5)
	25~29세	70 (66.2)	71.6 (67.8)	70.4 (68.0)	71.7 (67.6)	70.7 (68.4)	69.6 (68.0)
	30대	89.5 (53.7)	89.8 (53.7)	90.3 (54.5)	89.7 (53.5)	90.3 (54.3)	90.1 (55.4)
	30~34세	87.5 (52.9)	87.9 (53.2)	89 (54.8)	87.7 (53.0)	89 (54.3)	88.3 (56.7)
	35~39세	91.2 (54.3)	91.6 (54.1)	91.7 (54.1)	91.6 (54.0)	91.6 (54.3)	92 (54.0)
	40대	91.2 (64.2)	91.6 (64.9)	91.7 (64.6)	91.4 (64.9)	91.7 (64.7)	91.8 (64.5)
	50대	85 (56.9)	85.4 (57.7)	86.3 (58.1)	85.3 (57.7)	86.3 (58.1)	86.7 (59.4)
60세 이상	48.7 (26.3)	49.3 (26.6)	49.9 (27.9)	49.5 (26.8)	50.1 (28.1)	51.1 (28.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3] 25~29세 성별 고용률(좌) 및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우) 추이

(단위: %,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2.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상용직 605천 명 증가에 힘입어 451천 명 증가하였으나,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42천 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29천 명), 무급가족종사자(-32천 명) 모두 감소해 취업자 증가폭 둔화에 비임금근로자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은 2013년 2월 267천 명까지 증가폭이 둔화되었지만 2013년 2분기부터 증가폭이 확대되어 왔으며, 2013년 7월 이래 연속 50만 명대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7월 503천 명 ↑, 8월 506천 명 ↑, 9월 567천 명 ↑, 10월 531천 명 ↑).

<표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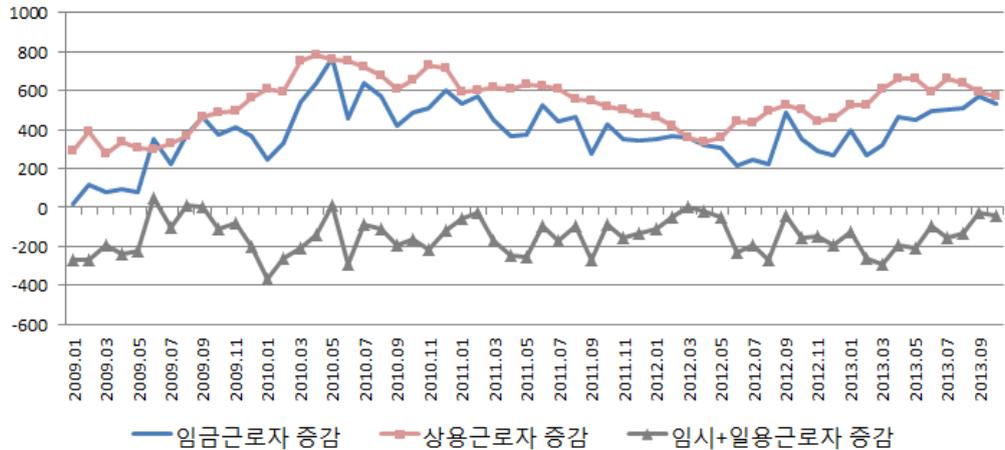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1.1~10	2012.1~10	2013.1~10
전 체	323	416	436	406	461	348
임금	517	427	315	443	322	451
상용직	697	575	436	591	434	605
임시직	-34	-78	-2	-90	18	-116
일용직	-146	-70	-120	-59	-129	-38
비임금	-194	-11	121	-36	139	-103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8	6	43	-2	58	-4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00	-5	81	-24	86	-29
무급가족종사자	-76	-12	-3	-11	-6	-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와 같은 상용직 및 임금근로자 증가는 신규 채용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그림 5]를 보면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중 근속 3개월 미만 된 사람의 몫은 2013년 2월 이래 감소폭이 줄다가 9월과 10월에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시 및 일용직을 포함해 임금근로자 전체로 보아도 2013년 들어 유사한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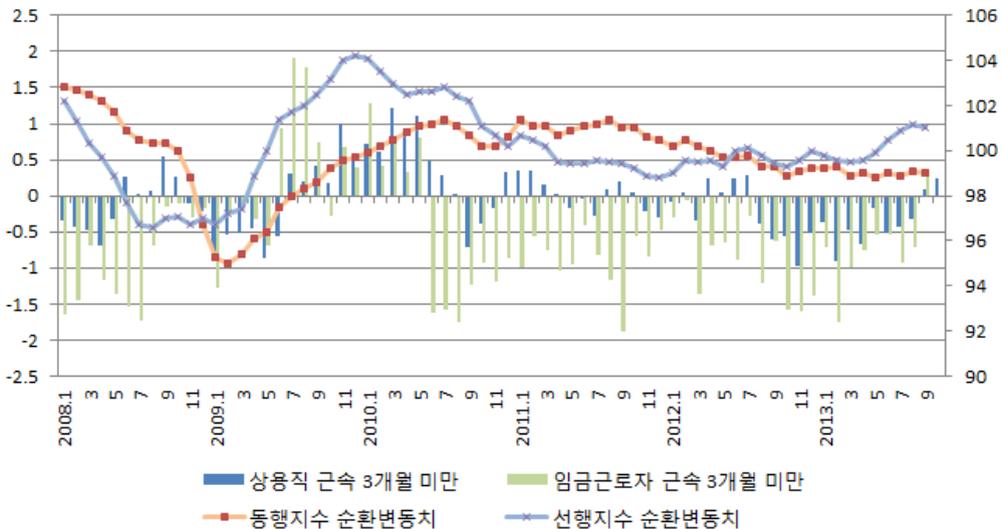
[그림 4]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5] 임금근로자 중 근속 3개월 미만자 비중의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주 : 해당 월 임금근로자 중 근속 3개월 미만자 비율의 증감(좌축 기준, %). 우축은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KOSIS.

〈표 5〉 각 연도 상반기 근속기간별·학력별 상용직 근로자 수 및 전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상용직 근로자 수				전기대비 증감			
		2010	2011	2012	2013	2010. 10월	2011. 10월	2012. 10월	2013. 10월
전체	3개월 미만	409	433	389	438	-10	25	-44	49
	1년 미만	1,456	1,525	1,648	1,666	226	69	123	18
	1~3년 미만	2,239	2,335	2,517	2,590	129	96	181	73
	3년 이상	6,176	6,503	6,749	7,181	307	328	245	433
	전 체	10,280	10,796	11,302	11,875	652	517	506	573
고졸 이하	3개월 미만	175	211	199	195	-37	36	-12	-4
	1년 미만	661	629	694	665	143	-32	65	-28
	1~3년 미만	955	948	998	1,060	75	-6	50	62
	3년 이상	2,402	2,484	2,575	2,660	155	82	91	85
	전 체	4,191	4,272	4,465	4,580	336	80	193	115
전문 대졸 이상	3개월 미만	234	222	190	243	27	-11	-32	53
	1년 미만	796	896	954	1,001	84	101	58	47
	1~3년 미만	1,285	1,387	1,519	1,530	54	102	132	11
	3년 이상	3,774	4,019	4,174	4,521	152	245	155	347
	전 체	6,088	6,525	6,837	7,295	316	436	312	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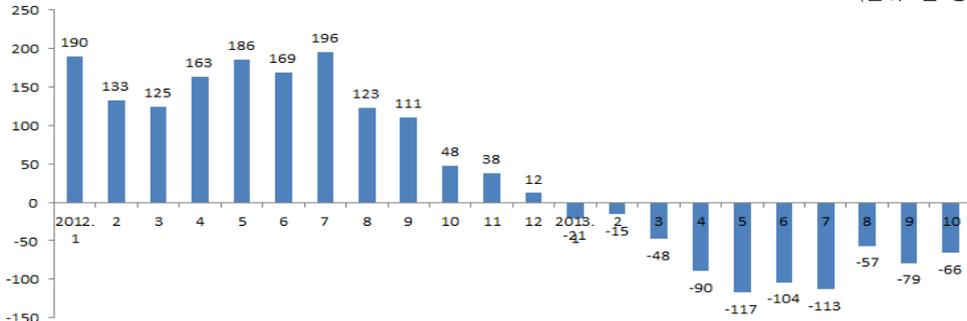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5>에서 상용직을 기준으로 근속기간·학력별로 전기대비 증감을 분석해 보았는데, 상용직에 한정할 경우 이와 같은 신규채용 확대는 주로 전문대졸 이상 학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3개월 미만 전문대졸 이상 53천 명 증가를 연령으로 나누어 보면 남성은 20대 후반에서 22천 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30대 초반에서 13천 명 증가하였으며, 업종으로 보면 여성 3개월 미만 상용직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2천 명 증가하였고, 남성은 제조업에서 12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는 자영업자의 감소폭 축소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자영업자는 2013년 1월부터 전년동월대비 감소로 전환되었는데, 대략 5~7월까지 감소폭을 확대하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폭이 다소 둔화된 상태이다. 계절조정 자료로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월 4,118천 명으로 가장 작은 숫자를 보였으나, 7월 4,125천 명, 8월 4,161천 명, 9월 4,133천 명, 10월 4,215천 명을 기록하여 최근 몇 달간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지속적으로 감소폭을 줄이다가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3. 서비스업 부문 고용증가폭 둔화된 가운데 제조업 부문 고용증가

2013년(1월~10월 평균) 취업자는 서비스업 고용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 고용증가폭의 둔화를 제조업이 만회해 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 부문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273천 명 증가하여 2012년 455천 명 증가한 것에 크게 밀돌고 있다. 서비스업 부문 고용은 2013년에 전년동기대비 273천 명 증가에 그쳐 2012년에 비해 고용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이와 같은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증가폭 둔화가 최근의 고용증가세 둔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 내부에서도 국제금융위기 이후 최근 고용증가세를 유지해 왔던 도소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148천 명 증가하는 등 서비스업 고용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증가폭이 전년동기대비 둔화되었지만 2013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서비스업 고용증가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제조업 고용은 2012년 7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3년 상반기에만 전년동기대비 120천 명 증가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83천 명 증가하여 2012년과 상반된 고용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3분기 들어 제조업 성장률이 2%대로 진입했으나 여전히 국제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낮은 성장률이다. 제조업 부문 성장률은 2012년 2분기에 2.7%를 기록한 이후 1%대 저성장을 유지한 반면 2013년 제조업 부문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83천 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2년 고용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도 민간부문 주도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공공부문의 고용증가세도 2012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 취업자는 2013년 10월 현재 상용직과 임시직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61천 명 증가하는 등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6〉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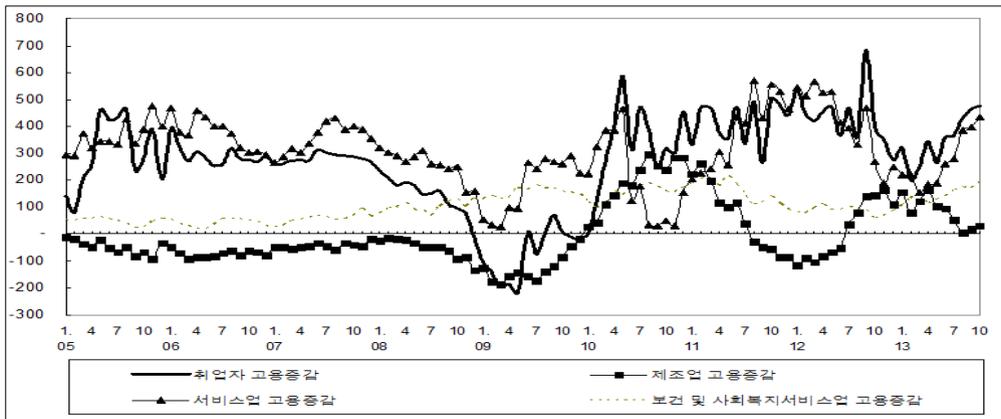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1. 1~10	2012. 1~10	2013. 1~10
취업자 전체	282	145	-72	323	416	437	407	461	348
농업·임업 및 어업	-58	-37	-38	-82	-25	-14	-26	-18	-4
전기·가스 등	10	4	6	-17	-3	0	-2	-2	17
건설업	16	-37	-92	33	-2	22	-20	38	-22
제조업	-42	-52	-126	191	63	14	93	-11	83
서비스업	356	260	179	199	386	416	365	455	273
도매 및 소매업	-38	-42	-31	-20	58	51	48	61	-45
운수업	54	1	-1	33	52	48	49	48	33
숙박 및 음식점업	0	-5	-108	-47	-36	53	-39	53	53
출판·영상·방송 등	-17	-7	25	16	35	-3	34	6	-11
금융 및 보험업	20	15	-55	42	38	-4	35	1	23
부동산 및 임대업	6	-17	12	17	-31	0	-32	-1	-4
전문·과학 등	21	55	87	39	78	67	80	72	-4
사업시설관리 등	135	20	-29	78	64	30	69	23	64
공공행정·국방 등	-5	44	191	-72	-9	0	-6	7	8
교육서비스업	38	44	48	-33	-113	58	-131	64	-1
보건·사회복지 등	59	103	156	155	159	88	170	90	148
예술·스포츠 등	-8	48	-28	-11	37	-8	41	-5	-24
협회 등	73	6	-86	5	45	25	38	24	29
공공	-5	44	191	-72	-9	0	-6	7	8
민간	287	101	-263	395	424	436	413	454	34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7〉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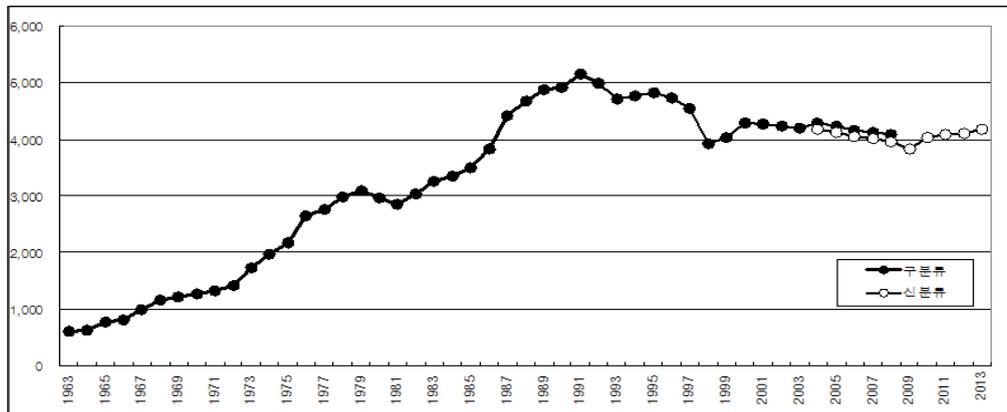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제조업 취업자 수는 [그림 8]에서 보듯이 2001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까지 단기적인 등락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을 저점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2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2013년에는 제조업 성장률이 여전히 낮은 데도 불구하고 제조업 취업자 수는 83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상반기 1%대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120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의 예상외의 고용호조에 불구하고 신규채용은 활발하지 않았으며, 장기근속자의 규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제조업 취업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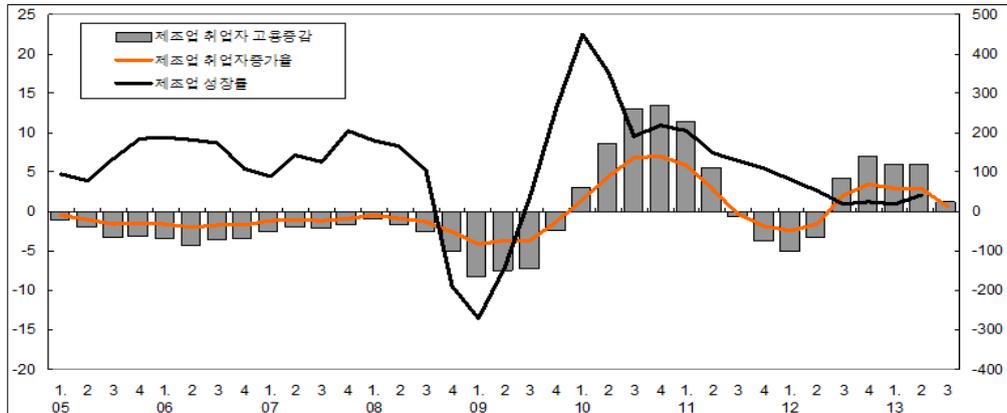


주: 2013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13. 6), 『매월 고용동향분석』 창간호.

[그림 9] 제조업 생산증가율·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http://ecos.bok.or.kr/>

최근 고용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용직 증가추세에 맞춰 제조업 고용증가세도 상용직이 주도하고 있다. 2013년 제조업 부문 상용직은 주로 30대 연령층과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50천 명 증가하였다. 반면 상용직을 제외한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자영업자의 고용감소폭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의 27.1%를 차지하고 있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제조업 고용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초반 연령층과 30대 연령층에서의 고용 약진이 눈에 띈다.

〈표 7〉 제조업 취업자의 특징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1. 1~10	2012. 1~10	2013. 1~10
제조업 취업자 전체		-42	-52	-126	191	63	14	93	-11	83
신규채용		-29	-12	-18	26	-11	-21	-12	-17	-11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23	-49	-96	162	69	40	97	16	124
	상용직	60	9	10	184	110	84	136	68	150
	30대	19	21	6	46	16	7	26	-6	87
	50세 이상	20	37	31	55	44	53	46	52	78
	임시직	-71	-49	-73	4	-37	-18	-37	-22	-8
	일용직	-13	-9	-33	-26	-4	-26	-2	-30	-17
	비임금근로자	-19	-3	-30	29	-6	-26	-4	-27	-41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8	-13	-9	11	2	-7	4	-6	-18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1	12	-18	-4	-3	-6	-4	-7	-12
무급가족종사자	-10	-2	-3	22	-5	-12	-4	-14	-12	
성별	남자	-26	-14	-16	115	26	19	48	0	98
	여자	-17	-37	-110	76	37	-5	45	-10	-15
연령별	20대	-42	-71	-47	24	-19	-25	-9	-28	-27
	20~24세	-39	-44	-3	11	-16	13	-12	12	18
	25~29세	-3	-27	-44	13	-4	-38	2	-41	-45
	30대	-33	-27	-40	12	-0	-23	10	-39	77
	30~34세	-27	5	-8	15	21	17	29	7	54
	35~39세	-5	-32	-32	-3	-21	-39	-19	-46	23
	40대	5	-20	-42	38	20	-3	27	-6	-40
	50대	23	57	27	92	46	49	49	48	55
60세 이상	6	13	-21	19	15	16	16	13	17	
사업체 규모별	300인 미만	-5	-8	-67	205	76	-41	99	-55	41
	300인 이상	-37	-44	-60	-14	-13	55	-6	45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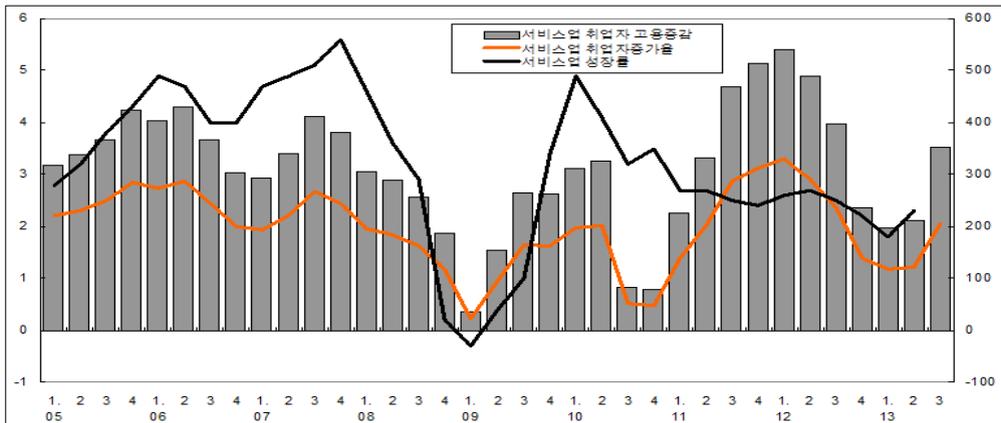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또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43천 명 증가하였으며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반기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은 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63천 명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2012년 105천 명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한편 2013년 서비스업 부문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273천 명 증가하면서 고용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서비스업 성장률 또한 2010년 3.9%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2%대 성장(2013년 1분기 1.8%, 3분기 2.3%)을 기록하는 등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 서비스업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

[그림 10] 서비스업 성장률과 취업자증가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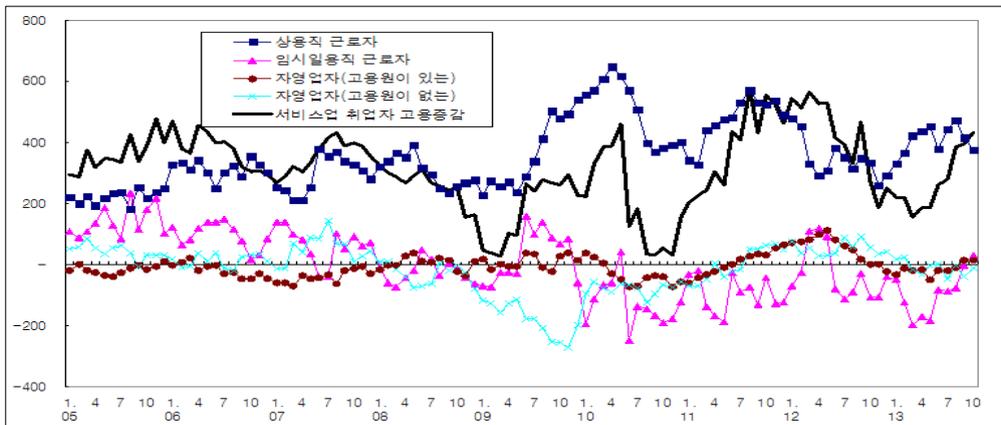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http://ecos.bok.or.kr/>

[그림 11] 서비스업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2.5%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서비스업 고용은 중고령층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416천 명 증가했다. 그러나 2013년 서비스업 고용증가폭은 임시직과 자영업자 감소로 인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13년 서비스업 고용증가폭 둔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로 2012년 전년 동기대비 121천 명 증가한 것과 달리 2013년에는 자영업자의 고용이 26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3년 들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0월 현재 15천 명 증가하는 등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 부문 자영업자는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업 내 운수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자영업 창업이 지속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8〉 서비스업 취업자의 특징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1. 1~10	2012. 1~10	2013. 1~10
서비스업 취업자 전체	356	260	179	200	386	416	364	455	273
신규채용	39	-44	106	-10	-44	-62	-34	-44	-52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360	281	390	371	379	317	377	314
	상용직	294	305	360	502	475	345	468	409
	임시직	94	-25	116	-46	-57	36	-63	52
	30대 연령층	-13	-10	-58	-13	-72	-61	-67	-49
	일용직	-27	1	-87	-85	-39	-65	-28	-72
	비임금근로자	-4	-22	-212	-171	7	99	-13	116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40	4	9	-33	6	52	-5	65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52	-31	-182	-78	2	53	-9	56
무급가족종사자	-17	5	-39	-59	0	-6	2	-6	
성별	남자	201	147	113	79	236	175	222	206
	여자	155	112	66	121	150	241	143	212
연령별	20대	9	-26	-55	-79	-21	-22	-27	-14
	20~24세	-50	-39	-32	-26	5	75	1	74
	25~29세	59	13	-23	-53	-26	-97	-28	-88
	30대	-58	26	-97	21	1	26	-4	41
	30~34세	-78	-37	-39	59	39	64	28	70
	35~39세	20	63	-59	-37	-38	-38	-31	-28
	40대	65	127	74	23	56	36	58	35
	50대	202	131	157	164	214	212	207	221
60세 이상	134	16	109	51	113	164	106	173	
산업별	도소매업	-38	-41	-32	-20	58	51	48	61
	음식숙박업	0	-5	-107	-47	-36	53	-39	53
	보건·사회복지업	59	103	156	155	158	88	170	9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자영업자와 함께 2013년 서비스업 부문 고용증가폭 둔화를 이끈 것은 임시직의 고용감소이다. 서비스업 부문 임시직은 전년동기대비 87천 명 감소하였으며, 특히 30대 연령층에서 전년동기대비 121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2년 49천 명 감소한 것에 비해 고용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임시직은 도소매업(53천 명)과 교육서비스업(45천 명)을 중심으로 감소하였고, 음식숙박업에서는 오히려 임시직이 전년동기대비 32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업 부문 고용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반면 서비스업 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다. 2013년에도 전년동기대비 148천 명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고용호조세를 견인하고 있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 고용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 추세인 반면 청년층과 노동시장 핵심연령층의 고용비중은 감소세이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노동시장 안으로 유인하는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일자리 10개 중 8개가 여성 일자리일 정도로 이 산업은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높는데, 이 산업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고용증가세는 여성을 중심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 종교관련직이나 의료보조직 등 돌봄 서비스(Care Service)에 집중된

〈표 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의 특징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1. 1~10	2012. 1~10	2013. 1~10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 전체		59	103	156	155	158	88	170	90	148
신규채용		3	6	5	8	13	3	18	2	0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56	98	149	151	155	90	166	92	131
	상용직	52	66	67	110	130	112	136	110	132
	임시직	6	32	74	40	29	-16	33	-11	-1
	일용직	-2	-1	8	1	-4	-7	-3	-6	-1
	비임금근로자	3	5	6	4	3	-2	4	-3	17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4	6	4	1	-0	0	0	-1	17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0	-1	1	2	0	-2	1	-2	-1
	무급가족종사자	-0	0	2	1	3	-0	3	0	1
성별	남자	19	11	15	6	19	13	21	14	28
	여자	40	92	140	149	140	75	149	76	119
사업체 규모별	300인 미만	40	89	155	156	151	89	161	91	122
	300인 이상	19	14	1	-2	7	-1	9	-1	26
직종별	전문가 및 관련전문가	44	99	51	73	102	79	107	79	115
	신규채용	6	6	5	13	10	-1	14	-2	-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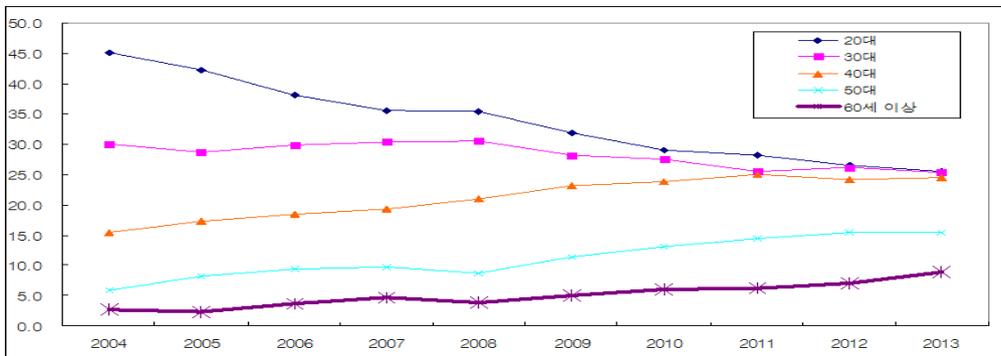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고용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에서도 신규채용은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이 증가한 반면 건설업의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22천 명 감소하였으나, 건설업에서의 신규채용은 일용직과 상용직을 중심으로 21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고용은 산업특성상 경기순응적인 패턴을 보이는데, 2008년 8월에 불어 닥친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쇼크로 2009년 건설업의 취업자 증가율이 일반적인 패턴을 벗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경기와 고용의 흐름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3년 건설업의 분기별 성장률(1분기 1.1%, 2분기 4.2%)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설업의 취업자증가율도 3분기에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그림 1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의 연령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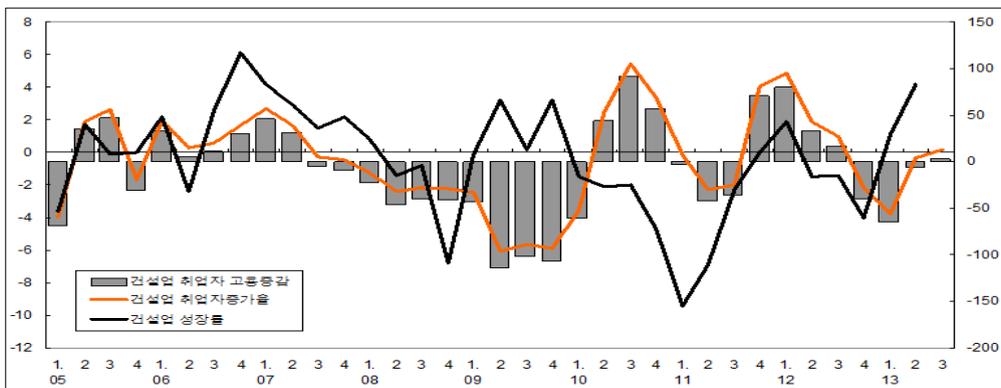
(단위 : %)



주 : 2013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3] 건설업 성장률 및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0〉 건설업 취업자의 특징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1. 1~10	2012. 1~10	2013. 1~10
건설업 취업자 전체		16	-37	-91	33	-2	22	-20	38	-22
신규채용		50	-40	-10	-6	-28	-12	-42	-8	21
증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60	0	-60	1	-14	-19	-27	-7	0
	상용직	48	55	11	20	-7	11	-11	14	24
	임시직	-4	-13	-30	10	20	-18	14	-11	-20
	일용직	16	-43	-40	-29	-28	-12	-30	-11	-4
	비임금근로자	-44	-37	-32	32	12	41	7	46	-22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31	-20	-20	5	4	5	5	5	-13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12	-17	-12	25	8	33	2	37	-5
	무급가족종사자	-1	0	0	1	0	3	0	3	-4
사업체 규모별	300인 미만	19	-48	-102	44	2	18	-14	34	-23
	300인 이상	-3	11	11	-11	-5	4	-6	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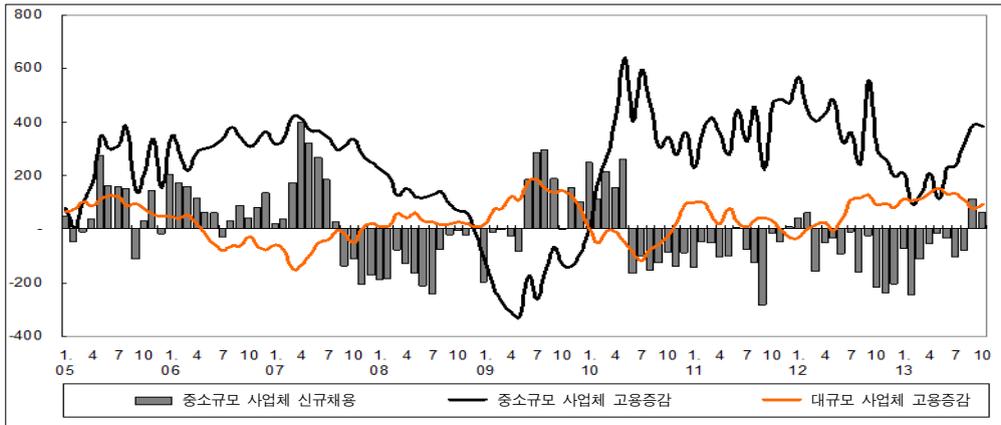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4.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확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은 2012년 5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3년에도 전년동기대비 115천 명 증가하였다. 반면 고용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체의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233천 명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사업체 규모별 고용증감 및 중소기업 사업체의 신규채용 규모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1〉 대규모 사업체 취업자의 특징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1. 1~10	2012. 1~10	2013. 1~10	
대규모 사업체 취업자 전체		-55	28	117	-31	37	55	49	49	115	
신규채용		-10	5	16	-2	0	-18	9	-20	4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55	29	118	-31	37	55	49	49	115	
	상용직	-24	20	85	2	37	81	42	77	112	
	임시직	-24	10	34	-30	3	-24	8	-25	3	
	일용직	-7	-1	-2	-3	-2	-2	-1	-3	0	
임금 근로자	연령별	20대	-24	5	-22	-18	19	-20	26	-19	-17
		30대	-9	11	46	-35	-6	53	-5	42	89
		30~34세	-12	4	34	-4	13	32	13	27	66
		40대	-15	-13	51	20	22	-3	25	1	4
		50대	-12	22	32	9	-4	30	-6	30	37
		60세 이상	4	4	12	-6	1	-2	2	-3	2
	산업별	제조업	-37	-44	-60	-14	-13	55	-6	45	43
		서비스업	-17	62	164	0	57	-1	62	4	60
		운수업	-3	-1	-6	-9	-5	4	-5	3	10
		전문과학 등	-2	33	56	8	38	33	37	35	13
		교육서비스업	0	13	12	9	-9	9	-12	9	15
		보건·사회복지	19	14	1	-2	7	-1	9	-1	2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 또한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30대 연령층의 고용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고용증가를 이끌고 있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더불어 교육서비스업, 운수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체에서 신규채용은 2013년 6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고용증가폭은 크게 둔화되었다.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는 중소기업의 고용악화로 이어져 2009년 중소기업의 고용은 전년대비 189천 명 감소하였다. 그 이후 중소기업의 고용은 2012년까지 평균 370천 명이 넘는 고용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13년에는 고용증가폭이 자영업자와 임시직의 고용감소로 대폭 둔화되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2011년 7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해 오다가 2013년 1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3년 전년동기대비 71천 명 감소하였다. 이는 2012년 고용증가세를 이끌면서 144천 명 증가한 것과 상당한 대비를 보인다. 특히 2013년 상반기에 40대·5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고용감소폭이 컸으며, 40대 연령층의 고용감소폭은 하반기에 갈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임시직은 전년동기대비 119천 명 감소하면서 자영업자와 함께 중소기업의 고용증가폭 둔화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30대 연령층의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134천 명 감소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중소기업 취업자의 특징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1. 1~10	2012. 1~10	2013. 1~10		
중소규모 사업체 취업자 전체		337	117	-189	354	378	381	357	412	233		
신규채용		67	-110	74	12	-81	-90	-94	-64	-54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475	207	130	548	389	260	394	273	336		
	상용직	440	366	298	695	537	355	549	356	493		
	임시직	54	-103	-12	-3	-80	22	-98	43	-119		
	30대 연령층	-28	-40	-97	-50	-88	-74	-90	-61	-134		
	일용직	-19	-56	-156	-143	-68	-117	-58	-126	-38		
	비임금근로자	-138	-91	-318	-194	-11	121	-36	139	-103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70	-35	-10	-18	6	43	-2	58	-42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15	-44	-249	-100	-5	81	-24	86	-29		
	무급가족종사자	-53	-12	-59	-75	-12	-3	-11	-6	-32		
임금 근로자	연령 별	20대	-17	-113	-70	-36	-67	-17	-71	-16	-27	
		25~29세	49	-25	-23	-29	-69	-101	-72	-98	-48	
		30대	13	67	-85	77	47	-85	57	-70	-88	
		40대	188	117	77	146	109	41	110	42	108	
		자영업자	-84	-33	-124	-102	-46	-16	-50	-15	-79	
	산업 별	50대	191	153	125	250	208	191	210	184	212	
		60세 이상	103	1	95	81	77	121	73	123	136	
		제조업	14	-5	-37	177	82	-15	102	-29	81	
		서비스업	377	220	226	371	322	317	315	335	255	
		음식숙박업	7	21	-39	26	-44	18	-33	5	75	
		보건·사회복지	36	84	149	152	148	90	157	93	105	
		직종 별	전문가 및 관련	146	186	40	126	147	76	141	91	60
			사무직	32	100	22	135	175	83	175	96	125
			장치·기계조작	3	-41	-8	72	51	75	52	69	101
단순노무직	174		-61	116	90	52	-57	65	-62	28		
자 영 업 자	산업 별	제조업	-9	-1	-27	6	-1	-14	-0	-13	-29	
		도소매업	-69	-23	-27	-52	-22	27	-37	34	-35	
		음식숙박업	-19	-15	-49	-50	6	27	-4	35	-24	
	연령	40대	-84	-33	-124	-102	-46	-16	-50	-15	-79	
		50대	59	19	42	36	76	58	71	71	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5. 고용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은 활발하지 않아

2013년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348천 명 증가하여 연말연초 전망했던 것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다. 특히 상용직은 전년동기대비 605천 명 증가하면서 임금근로자의 고용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은 2011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구직자의 신규입직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신규채용이 감소한 반면 음식숙박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건설업 부문에서는 신규채용이 그나마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 연령층의 신규채용은 2013년에 전년동기대비 2천 명 증가하여 2012년에 비해 증가폭이 줄어들었으나 2013년 8월부터 3개월 연속 신규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4세 연령층의 신규채용은 10월 현재 6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사업체의 신규채용도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표 13〉 임금근로자의 근속연수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1. 1~10	2012. 1~10	2013. 1~10
임금 근로자	전 체	420	236	247	517	426	315	443	322	451
	3개월 미만	57	-105	90	10	-81	-108	-84	-84	-50
	3개월 ~1년 미만	-44	-31	-19	171	-48	17	-38	25	-115
	1년 이상	406	372	176	336	556	406	565	381	616
신규채용 규모	제조업	-29	-12	-18	26	-11	-21	-12	-17	-11
	서비스업	39	-44	106	-10	-44	-62	-34	-44	-52
	음식숙박업	8	-8	-14	-5	-10	-3	-8	1	7
	출판영상 등	-5	-0	0	-4	7	-18	8	-18	7
	보건사회복지	3	6	5	8	13	3	18	2	0
	건설업	50	-40	-10	-6	-28	-12	-42	-8	21
	중소규모 사업체	67	-110	74	12	-81	-90	-94	-64	-54
	대규모 사업체	-10	5	16	-2	0	-18	9	-20	4
	상용직	12	8	9	66	29	-5	36	8	-11
	20대	-28	-27	12	1	1	11	4	14	2
55세 이상	49	-14	73	29	17	33	13	33	25	

주 : 신규채용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Ⅲ. 2014년 고용전망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2013년 1월부터 3.8%대를 전망하였다가 7월달에 4.0%로 상향조정 한 뒤 가장 최근인 10월 전망에서는 3.8%로 다시 하향조정하였다.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년동기대비 2.8% 성장이 예상되는 2013년에 비해, 2013년 2분기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세가 내년까지 이어져 올해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전망한 것이다.

〈표 14〉 한국은행 2013년·2014년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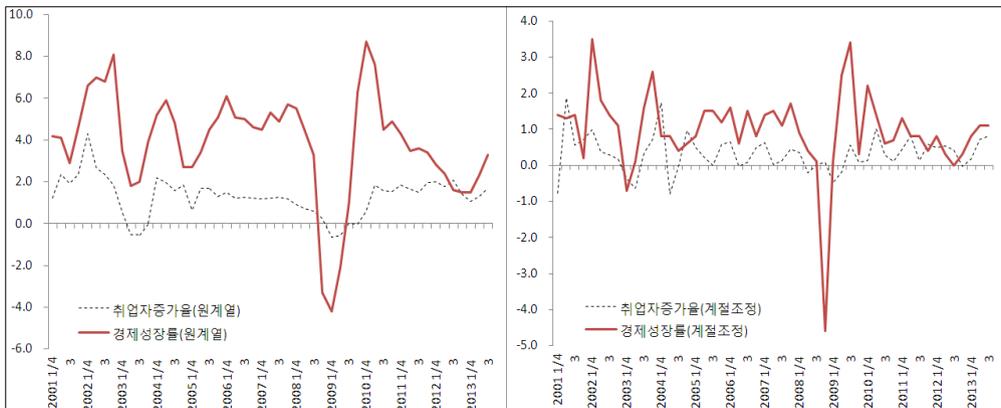
(단위: %, 만 명)

	2013. 1				2013. 4				2013. 7				2013. 10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상 반	하 반	연 간	연 간	상 반	하 반	연 간	연 간	상 반	하 반	연 간	연 간	상 반	하 반	연 간	연 간	
세계경제성장률	3.1	3.6	3.4	3.8	3.0	3.6	3.3	3.9	3.0	3.4	3.2	3.8	3.0	3.3	3.1		3.6
경제성장률	1.9	3.5	2.8	3.8	1.8	3.3	2.6	3.8	1.9	3.7	2.8	4.0	1.9	3.6	2.8	3.9	3.7
민간소비	2.6	3.0	2.8	3.4	2.3	2.6	2.5	3.3	1.7	2.4	2.1	3.5	1.6	2.1	1.9	3.3	3.3
수출	4.3	6.6	5.5	8.2	4.5	5.9	5.2	8.3	5.0	5.2	5.1	8.0	5.3	5.7	5.5	4.8	9.4
취업자 수	27	33	30	32	25	30	28	30	29	36	32	40	29	37	33	40	37
실업률	3.5	3.1	3.3	3.2	3.5	3.2	3.4	3.3	3.4	3.0	3.2	2.8	3.4	3.0	3.2	3.2	2.9

주: 한국은행 2013년 3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은 3.3%를 기록함.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각월.

〈그림 15〉 경제성장률·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전기비,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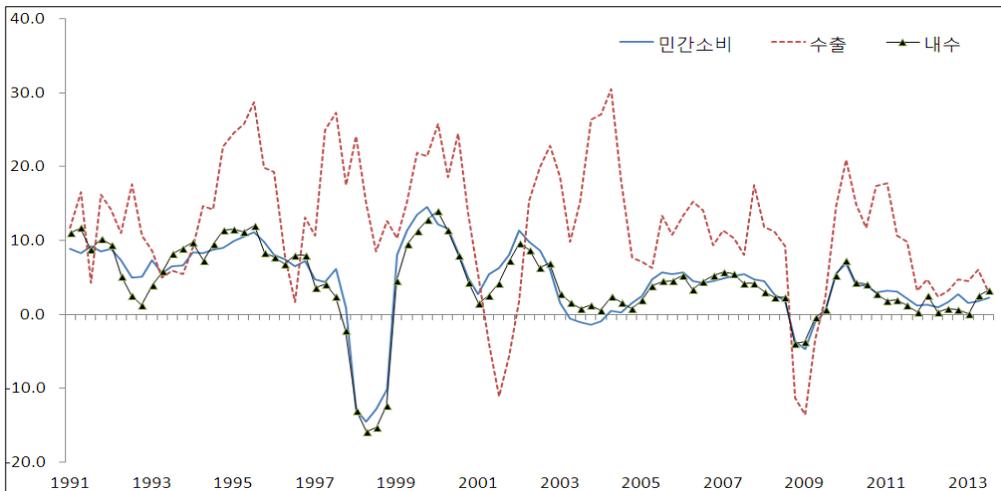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고용·주택시장 등에서의 회복세 지속, 중국의 안정성장 기조 유지 등으로 2014년 세계경제는 연 3.6%대의 완만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상품수출은 금년보다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소득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으로 경제성장에 내수부문이 기여하는 비중의 확대가 예상된다. 성장을 제약하는 위험요인들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재정·금융 통화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국제유가의 불안 등이 존재하며, 국내적으로는 높은 가계부채와 주거임대비용의 상승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림 16] 민간소비, 수출, 내수증가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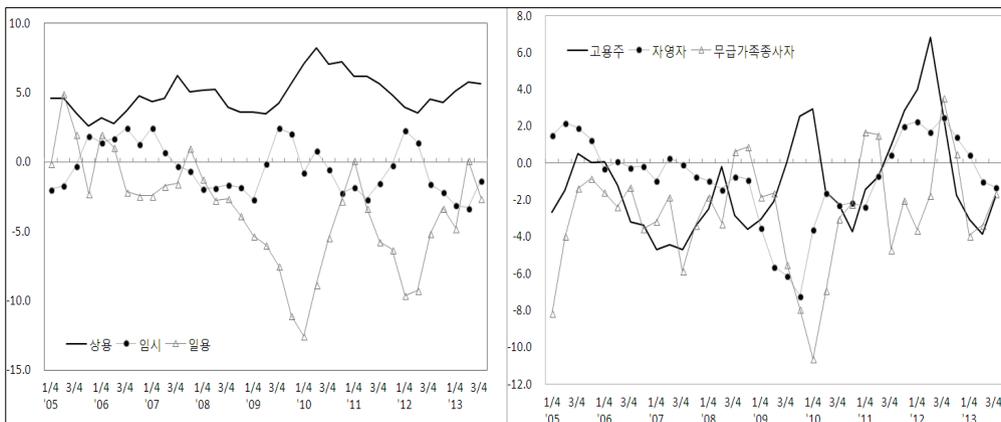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그림 17] 종사상 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12년 말·2013년 초 중 우리나라 경제가 저점을 통과하면서, 후행적인 반응을 보인 고용시장에서는 취업자 수가 상반기 291천 명 증가에 그쳤으나 3분기부터 증가폭이 확대되어 하반기에는 434천 명이 예상된다. 2012년과는 대조적으로 금년의 취업자 증가는 상용직의 꾸준한 증가세 유지와 일용직 감소세 둔화, 그리고 비임금근로자 감소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하반기 중에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부문이 고용 증가를 주도하였다. 취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3년 중 증가세를 주도한 연령층은 중·고령층이었으나 올 하반기 들어 청년층 고용 증가의 시그널이 관측되는 등 4분기에는 소폭 증가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2013년 노동시장 상황을 주도하였던 추세 중 상당 부분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당한 감소세를 보인 자영업자는 당분간 추가적으로 큰 감소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용직은 현재까지의 장기적 추세가 이어져 내년에도 취업자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청년층 고용 증가 기미가 내년에 본격화될지 여부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의 경기회복이 내년까지 이어져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014년 상반기 3.9%, 하반기 3.7%를 전제할 경우, 취업자증가율 역시 하반기의 회복세를 이어가 2014년 상반기 423천 명, 하반기 405천 명 (연간 414천 명, 전년대비 1.7%)의 취업자 증가가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4년 연간 실업률은 전년보다 0.2%p 낮아진 2.9%, 고용률은 0.3%p 높아진 59.8%가 전망된다. **[11]**

〈표 15〉 2013년 하반기 · 2014년 고용지표 전망

(단위: %, 천 명)

	2013			2014		
	상반	하반p	연간p	상반p	하반p	연간p
경제성장률	1.9	3.6	2.8	3.9	3.7	3.8
생산가능인구	41,985	42,217	42,101	42,468	42,699	42,583
경제활동인구	25,614	26,079	25,846	25,999	26,455	26,227
경제활동참가율	61.0	61.8	61.4	61.2	62.0	61.6
취업자	24,755	25,331	25,043	25,178	25,748	25,463
(증가율)	1.2	1.7	1.5	1.7	1.6	1.7
(증감수)	291	434	362	423	405	414
실업자	859	748	803	820	707	764
실업률	3.4	2.9	3.1	3.2	2.7	2.9
고용률	59.0	60.0	59.5	59.3	60.3	59.8
비경제활동인구	16,371	16,138	16,255	16,469	16,243	16,356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표 16〉 경제성장률 · 취업자증가율 · 고용탄력성 추이

(단위: 천 명, %)

	고용증감	경제성장률	취업자 증가율	고용탄력성
1998	-1,276	-5.7	-6.0	1.055
1999	353	10.7	1.8	0.165
2000	865	8.8	4.3	0.484
2001	416	4.0	2.0	0.492
2002	597	7.2	2.8	0.384
2003	-30	2.8	-0.1	-0.049
2004	418	4.6	1.9	0.411
2005	299	4.0	1.3	0.331
2006	295	5.2	1.3	0.248
2007	282	5.1	1.2	0.239
2008	145	2.3	0.6	0.268
2009	-72	0.3	-0.3	-1.014
2010	323	6.3	1.4	0.218
2011	415	3.7	1.7	0.471
2012	437	2.0	1.8	0.900
2013p	362	2.8	1.5	0.525
2014p	414	3.8	1.7	0.435

주: 2013년, 2014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